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11월 2일 (제76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02)533-9191 Fax.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032)763-9191 Fax.032)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감칠맛 나는 삶

나예겐 의형제 한분이 있다. 그는 수하에 박사 수백 명을 거느릴 정도의 능력자다. 그는 70대 중반이 넘어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역동적으로 세계를 누비고 있다. 어디서 저런 힘과 열정이 나올까 생각한 적이 많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장시간 얘기하는 중에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한바탕 웃었다. 그것은 목표와 목적이 우릴 이끌고 있기에 의욕적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과학자며 사업가다. 그래서 그는 연구 개발하는 정신으로 세계에 무언가 이바지해야겠다며 지금까지 달려왔고, 나는 구원사역자요 목회자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지상목표가 있었기에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며 지칠 줄 몰랐던 것이다.

감칠맛 나는 삶을 원하는가? 맛난 삶, 멋진 삶을 원하는가? 그것은 목표를 향하여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달릴 때 가능하다. 게으른 자, 회색분자, 핑계나 대는 자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삶의 진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환경이나 조건도 이유가 될 수 없다. 문제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고, 목적의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삶이 고달프고 가다가 중단하는 것이다.

신앙도 그렇다. 신앙의 목적과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고 감칠맛 날 것이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8:5~6).

당신들도 삶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며 늙지 않는다. 또한 알지 못하는 새 힘과 지혜가 샘솟는다. 지금 늦었다 생각 말고 작은 일과 작은 목표부터 찾아보고 시도해보라. 한강의 발원지도 처음은 신발 한 짝조차 띄울 수 없는 실개천이었지만, 강이 되어 바다로 나가지 않는가. 늙기가 서럽걸랑 무엇이든 일거리를 찾고 생각하라. 새로운 삶에 감칠맛이 날 것이다.

단 열매는 기다린 자의 몫이다

“열 익은 과일은 입맛도 버리고 과일도 버린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다.”

“열매를 따는 자는 씨를 뿌린 자가 아니라 열매를 딸 때까지 기다리는 자다.” 목사님이 강단에서나 사석에서나 자주 하시는 말씀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은 꿈이 있기에, 목적하는 바가 있기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열매는 바로 그런 자를 기다리며 결실한다.

목사님은 5월 20일에 예정되었던 서울 시청광장의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세월호 참사로 연기하시며 이렇게 말씀했던

날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거행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목사님은 시청집회를 통해 웅변해주신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할 인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반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말이다.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가 되고, 추진력이 되고, 오통아처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강한 복원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여 세상 사람들은 도전과 모험이라 말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주사위를 던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되어질 일을 기대하며

통해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 인내를 가르치고,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신다.

우리가 시청집회를 통하여 배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때에, 더 아름답게 이루어주신다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경험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한 것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죽어간 것은 그 엄청난 기사와 표적,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뜨거운 태양과



서울시청광장의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거둔 열매의 본보기였다

결로 기억한다.

“포기와 취소와 연기는 다르다. 포기는 자신감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가치가 없어 없앤 것이고, 연기는 꼭 필요한 가치가 있어 뒤로 미루었다가 힘을 합하여 하는 것이다. 30년 목회 하는 동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셨다. 또한 1992년 메인스타디움 집회도 잠시 늦추셔서 더 완벽한 집회를 가진 경험이 내게 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뿐이다. 이번에도 연기하는 덕분에 더 기도하고, 더 완벽히 준비하여 마침내 은혜롭고 아름다운 성회가 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정말 서울시청광장의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주지하다시피 9월 8일 추석

믿음으로 인내할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 참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 왜 오래 참지 못하겠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전도서 1:2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전3:1)고 말씀한다.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지 너무 잘 아신다. 그럼에도 당장 주시지 않는 것은 아직 그 필요가 합당치 않을 수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자녀를 성장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고, 자녀에게 더 큰 기쁨으로 주고 싶어 때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가장 절실할 때 받는 기쁨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을

추위를 막아주시며, 바위에서 생수를 내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 먹이시는 등 셀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단지 손바닥만 한 구름조각을 보고 비를 내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요20:29)고 말씀하신 것이다.

2014년도 저물어간다. 다시 말하지만 열매는 인내한 자의 몫이다. 그리고 그 인내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다. 확신하건대 평화통일 대구성회는 반드시 단 열매를 딸 것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평화통일 대구성회 11월 4일(화) 오후 1시 대구실내체육관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8:1~18)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다르게 보라

한 초등학교 저학년 시험문제에 ‘겨울이 가면 ()’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겨울이 가면 눈이 녹아요.’, ‘겨울이 가면 신나게 놀아요.’ 등등의 답을 썼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답을 다 오답 처리했습니다. 왜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라는 선생님이 정한 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아이들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답과 달랐을 뿐입니다. 수학적인 답은 언제나 하나이지만, 예술적인 답은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다르다’의 뜻은 ‘비교되는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고, ‘틀리다’는 ‘옳다’의 반대개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것을 틀렸다고 했을 때, 남을 정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옳은데, 남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헐뜯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60평생을 살아보니 예술에 답이 여러 개이듯, 인생에도 답이 여러 개입니다. 인생은 수학적인 계산법만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피카소와 고흐의 화법이 다르듯 제각각 인생의 화법도 다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 타고난 성품, 교육정도, 상황 등으로 인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내 잣대로 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남미에 가면 인사할 때 남자건 여자건 처음 봤건 관계없이 양 뺨에 짹짹 소리가 나도록 키스를 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의 정서에는 절대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 해외에서 오신

남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양성이지요. 그러면 이해하게 되고, 더는 나와 다른 또 하나의 세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에서 화합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범하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큰 아들이 있으면 공부 못하는 막내에게 너는 틀렸다고, 너는 왜 매일 축구만 하냐고 하는 경우 말입니다. 큰 아이와 막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부모라면 “너는 형과 다르구나. 형은 공부를 좋아하는데, 너는 축구를 좋아하느냐. 축구해볼래?” 할 것입니다.

실제 아
인 슈타
인 이
나



총회장 이초석 목사

에
디
슨
의
어머
니가
그랬
습니다.
학교선
생님이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수업할 수 없다고,
저능아라고 했을 때, 이들의 어머니는 아
이에게 “네가 틀린 게 아니야. 너는 다른
아이들과 많이 다를 뿐이야.”라며 아이
를 끝까지 믿어주며 격려했기에 세계적
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수학적인 계산법이여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에는 여러 답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하는 이 답 외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4:12).

요즘 종교 다원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어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와 원불교 등이 ‘사랑으로 하나 되자’고 하고 있는데,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제사 지내는 거요? 천주교는 제사 지내라고 하는데, 왜 기독교는 안 되냐고, 또 더러 교회에서도 지내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만 왜 유독 안 된다고 하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걸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틀린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전10:20).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벗어난 경
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
린 것입
니다. 그

런
데요,
교회 안
에도 분량의
문제는 존재합니
다. 믿음의 분량이 때
로는 틀리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간다고 하면 “믿
음도 없지. 왜 병원에 가? 다 귀신이야.
목사님께 안수 받고 귀신 쫓아.”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 가고 싶는데 믿음이 없
는 소리 들을까봐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경우 말입니다. 이 경우는 교
회 안에서도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
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12:3). 또한 “믿음
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
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
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롬14:1~3)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 문제인
데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 교구에서나 구
역에서 헌금을 독려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성도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믿음
이니까, 축복 받을 거야 하면서 강요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형편과 믿
음이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레위

인생에 타협은 보약 신앙에 타협은 독약

기에는 제사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속죄제
의 제물을 보면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는
수송아지를,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한 경
우도 수송아지를, 족장이 범죄한 경우는
흙 없는 수염소를, 평민인 경우는 형편에
따라 흙 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이나 산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런데 레위기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
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가져
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
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
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
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찌니 이는 속죄제라.”라고 기록되
어 있습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 산비둘기마저도 못
사는 자들은 고운 가루로 그것들을 대
신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 원칙을 깨뜨리면서
까지 극빈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한 것입
니다.

정리합니다. 내가 다 옳을 수 없습니다.
내 방법, 생각이 아닌 남의 것도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정죄하기 전에
다른 것을 인정합시다. 그러나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음으로 철저하게 하나
님 말씀 안에서 삽시다. 그러면 이 세상
은 물론 내세에서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
다. 할렐루야!

대화의 출발은 다름의 인정에서부터

목회자 한 분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표정하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
분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었던 모양입니
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설
명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요,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
다. 그러면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저의 제자들 중에는 교회를 안 짓는 것
에 불평하고, 틀렸다고 정죄하고 교단을
나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리
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각이 다를 뿐입니
다. 성령을 모신 곳이면 어디든 성전이라
는 생각이 제게 있고, 또한 교회를 짓는
것보다 한 영혼이라고 더 구하는 것이 우
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유통기한

얼마 전, 어떤 분이 전복장을 보내주셨다. 금식하느라 바닥난 기력을 조금이나마 보충하라며 챙겨주신 것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뚜껑을 개봉하는데 시큼한 냄새가 먹기도 전에 입맛을 자극했다. 간장을 한 숟가락 떠서 밥에 쓱쓱 비벼 입에 베어 문 순간, 비린내와 더불어 형용하기 힘든 묘한 맛이 났다. ‘귀한 완도산 활전복으로 담긴 것이라더니 뭐가 좀 다르긴 다른가봐?’ 전복도 꺼내어 맛을 보았다. 하지만 입맛을 잃어서 그런 건지, 원래 맛이 이리 요상해서 그런 건지 밥 반 공기를 비워가면서도 마음 한편이 내내 찝찝하기만 했다. 그러다 뚜껑에 눈이 갔는데, 그만 못 볼 것을 보고 말았다. ‘제조일자 2011년 11월 13일, 방부제를 넣지 않았으니 10일 이내에 드세요.’ 지금이 2014년인데.... 덕분에 원 없이 장청소를 했으니 이 또한 감사할 따름이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다. 식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산품에는 이러한 유통기한이 붙는다. 그리고 보니 사람의 목숨도 유통기한이 있고 천지만물 또한 그 끝이 있지 않은가!

비단 눈에 보이는 것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도 적용된다. 우리 삶에 어떤 자그마한 변화를 주기만 해도 우리의 행복감은 급상승한다. 덤수룩하게 자란 머리숱을 정리하기만 해도 그렇고, 목욕탕에서 땀 한 바가지 흘리며 불린 때를 밀어도 그렇다. 마음에 그리던 차를 새로 장만하면 또 어떤가! 알뜰살뜰 허리 띠 졸라매고 내 명의

로 집을 장만했을 때, 사랑하는 이를 만나 ‘판~ 판파파’ 반주에 맞춰 결혼에 골인할 때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다 기한이 있다. 처음 뿌듯하고 설레던 마음은 시간의 흐름 속에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만다. 마치 그토록 팽팽하던 풍선도 하루 이를 지나면 어느 샌가 바람이 빠져 주글거리고 말듯이 말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유통기한이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크신 사랑.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그 사랑에는 결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9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어떤 조건을 충족했다고, 소유했다고, 성취했다고 해서 얻는 기쁨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기한이 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채워주거나 만족케 하지 못한다. 우리가 당면한 숱한 삶의 문제들과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마음과 생각, 입술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은혜뿐이다. 오직 우리의 마음은 주께서 주신 은혜로써 굳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귀한 은혜도 유통기한 적용을 받는 것일까?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이들을 대한다. 지금 당신은 어떠한가?

신현명 목사

당신의 묘비명에는?

가난한 자의 구조자, 게르트루트에서는 인민을 가르친 사람, 고아의 아버지, 초등학교의 창시자, 인류의 위대한 교육자, 참다운 인간! 그리스도인, 모범시민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

우물쭈물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버나드쇼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노라 -김수환 추기경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시인 천상병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 -한국의 철강왕 박태준 회장

상상력, 큰 희망, 굳은 의지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에디슨

겨레의 못 가슴에 그 웅지, 그 경륜이 -정주영 회장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기부한다 -유일한 박사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오 -헤밍웨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모과상

자기보다 현명한 인재를 모으고자 노력했던 사나이 여기 잠들다 -이병철 회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놀라움 -임마누엘 칸트

이것은 묘비명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 목사님의 가묘(假墓)에는 “예수의 종”이라고 적혀 있다. 묘비명은 묘비에 고인을 기념하는 명문(銘文)이나 시문(詩文)을 새긴 것을 말한다. 고로 묘비명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유언과 묘비명을 생각해보라고 누군가 얘기했다. 인생의 중간 시점에서, 누군가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한번쯤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당신의 묘비명은 뭐라고 쓰고, 쓰일 것 같은가?

예수중심편집실



::To Be Succeed::

우선순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프랑스어는 부와 권력, 명성은 마땅히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이는 비단 권력과 명성을 가진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 ‘윈들러리스트’의 실제 주인공인 오스카 윈들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로부터 유대인 1,100여명을 구해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부유한 사업가였던 그는 나치 당원이 되면서까지 그릇 공장을 인수,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던 기회주의자였다. 그러던 그가 독일 군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본 이후로 뇌물을 써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빼돌려 구출하기에 이른다. 후에 독일

을 점령한 연합군에 쫓기면서도 ‘왜 더 많은 유대인을 구하지 못했나.’ 하고 마음 아파했던 그는 가슴 한쪽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마땅히 할 일을 행했다.

1924년 파리올림픽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거머쥔 에릭 리델. 100m 경기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그가 자국민의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경기를 포기한 이유는 단 하나,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출전한 400m 경기. 당일 이미 두 경기나 치렀기에 그가 우승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지만,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은 그는 고백했다. “처음 200m는 최선을 다해 빨리 달렸고, 나머

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모든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성경에 답이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우선순위를 정하신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지금, 당신의 삶에 있어 우선순위로 두고 힘써 행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전 세계 누구나 알고 있고 즐겨 마시는 브랜드 음료인 ‘코카콜라’가 처음에는 소화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사는 존 펨버튼이라는 약사가 코카인과 카페인에 탄산수를 섞어 개발한 시럽으로, 처음에는 약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때 당시만 해도 콜라는 지금처럼 맛이 있지도 않았고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검은 빛깔의 소화제 대용품이었습니다. 그런데 1893년 아서 켄들러라는 사업가가 콜라의 잠재력과 사업성을 알아보고 제조법을 사들였고, 제품을 약이 아닌 음료수로 규정하여 본격적으로 콜라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만병통치약 내지는 자양강장제처럼 시판되어 인기를 끌었던 콜라는 이후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전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군수 음료로 선정되면서 세계 곳곳에 생산 공장을 짓게 되었고, 전쟁 후에는 그 공장들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 콜라를 보급하면서 이제는 그 브랜드 가치가 82조 원에 달하는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콜라가 계속 소화제로 남아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즐겨 마시는 콜라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는 콜라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소화제 대용품에 불과했던 콜라를 음료수로 바꾼 탁월한 안목이 있었습니다.

만물을 상품으로 보는 안목, 그것이 지혜입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장소와 행동의 일치

매년 10월 초가 되면, 부산에서 국제적인 축제가 열린다. 바로 부산국제영화제이다. 영화제이다 보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면면은 정말 각양각색이다. 감독, 배우 등 말 그대로 영화인들이 대거 모이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의 영화 관련학과 학생들의 참여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리고 영화제를 찾는 배우들을 보기 위해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 팬들도 부산을 방문한다. 그렇다보니 영화제에 영화를 즐기러 오는 것인지 시쳇말로 젓밥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것인지 애매 모호한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다.

감히 말하건대, 나 같은 경우는 영화제에 출품된 300여 편의 영화들을 최대한 많이 접하려고 영화제를 찾는다. 스케줄을 잘만 잡으면 하루에 4편의 영화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일주일의 영화제 기간 동안 보통 15편에서 20편 이상의 영화를 보고 간다. 이렇게 영화를 보려면, 식사 시간도 줄이고 이동 시간도 줄여야 한다. 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틈틈이 산책을 하는 것도 시간을 쪼개야

만 가능하다.

이번 영화제 때, 영화에 대해 나와 비슷한 꿈을 갖고 있는 한 친구도 영화제에 참석을 했었다. 서울에서도 자주 못 보던 친구라 바다를 바라보며 차라도 한 잔 마시기로 약속을 하고 각자 부산으로 향했다. 막상 부산에 도착하니 나는 영화를 보느라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더니 아침 영화는 놓치기 일쑤고, 영화는 보는 중 마는 중 하더니 최근에 얼굴을 알리게 된 아이돌급 배우와 우연히 함께한 사진만 포스팅하고는 서울로 돌아갔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20편의 영화에 대한 후기를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그 친구, 부산에서도 안 보던 영화들을 서울에 와서 보기 시작한다. 아침에는 독립 영화관을, 점심, 저녁에는 멀티플렉스 극장을 찾아다니며 하루에 두세 편씩 영화를 본다.

영똥한 그 친구의 행동을 보며 깨달은 바가 많았다.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으면 자신

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꿈이 영화 평론가라면, 당장의 달콤한 축제의 분위기는 잠시 미뤄둔 채로 어두운 상영관으로 향하는 것이 더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에 목적의식이 없다면 표류하는 배나 진배없다. 방향도 없고, 나갈 의욕도 상실한다. 그러나 목적의식은 열정을 갖게 하고, 난관을 이길 힘을 가진다. 또한 피곤을 잊게 한다.

신앙도 그렇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는 것이다. 이 목적의식이 확실하면 아무리 달콤하고 화려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더라도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끝까지 살 것이다.

이번 부산영화제는 영화 외에 큰 깨달음을 얻은 중요한 시간이었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순수한 믿음으로!

무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에서 무디 목사님은 은시계를 꺼내서 “내가 이 은시계를 누구에게 주고 싶은데 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학년 학생한테 가서 “너 가져라.” 해도 안 받더라요. 할 수없이 4학년의 다른 학생에게 가서 “그럼 네가 받거라.” 하는데 뒤로 빼며 역시 받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유치원생 앞에 가서 “그럼 네가 받을래?” 하니깐 덩석 받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깔깔거리고 웃더라요. 왜 웃을까요? 분명히 놀리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덩석 받아 가니까 바보 같다고 웃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디 선생님은 유치원생에게 “이제 그 시계는 네 것이니까 집에 가서 시계 밭 잘 줘라.” 하자 그때서야 6학년 학생도, 4학년 학생도 눈이 커지면서 “선생님 진짜로 준거예요? 선생님이 농담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받을 겐!” 하며 후회하더라고요.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학생들에게 믿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왜 주는데도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걸까요? 4학년과 6학년 학생은 내 생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 시계가 얼마나 비싼데 선생님이 진짜로 주시겠냐는 거죠. 그러나 유치원생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대로 받는 거지요.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유치원생처럼 순수한 믿음입니까? 6학년 믿음입니까? 4학년 믿음입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13:5).

Good News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가 믿음 안에서 죽은 영혼과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 예수님 오른쪽에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영혼들이 있고, 왼쪽으로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하단의 중앙에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최후의 심판 날이 도래하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 예수님 곁으로 올라가고 죄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들이 묘사되었습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이 391명이나 되는 대작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채 천사와 죄인들 사이

에서 왼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절망에 빠져 고민하고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미술 학자들은 미켈란젤로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나타내고자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이 남자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명작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그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고민하는 남자’는 미켈란젤로의 상상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필요없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 그 시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선택을 고민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시종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기에 지금이 바로 구원을 위한 선택의 때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

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살전5:9-10).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심판을 면케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꿈을 잃고 사는 아이들

가끔씩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다. “너희들의 꿈은 무엇이니?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 이런 질문에 열에 아홉은 피식 웃거나 아직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수줍게 말한다.

안타까운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이것이다. “꿈이 없이 산다는 것은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배와 같다. 오늘부터라도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시작해 보라!” 그러면 아이들은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하고 싶은 것은 OO인데 제 성적이 안 좋아서요.”

이 아이처럼 많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꿈을 당당하게 말하기 위한 자격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 사실 그렇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판검사나 의사, 교수 등 세상이 부

러워하는 직업들을 꿈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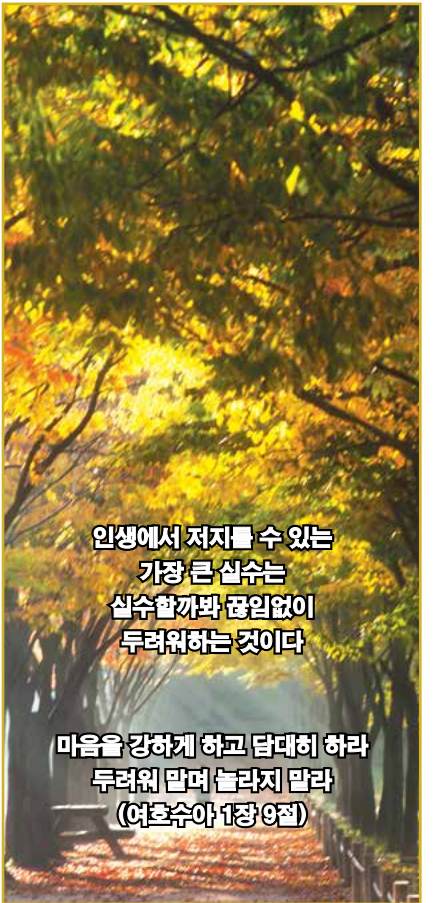
그러나 진실로 원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문이 열리는 법이다.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며 간절히 구하는 학생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이번 학기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어떤 고3 수험생의 꿈은 비행기 조종사였다. 그 학생의 내신은 4등급이었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 학생은 괴로워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꿈은 꿈으로만 남겨둬야 할 것 같으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려고 하였다. 나는 그 학생에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조종사가 되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일단 항공서비스 학과에 진학을 하여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항공학교를 찾아보는 것이었다.

그 학생은 용기를 내어 5~6개 대학의 항공 서비스 학과에 수시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면접 준비를 하였고 지금은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자국 성큼 내딛게 되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예수중심교회의 청소년들도 직업의 선정 범위를 우리나라 안에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계를 향해서 눈을 열고 고개를 들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더 많은 길이 보인다는 것을 명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꿈을 향해 매진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시키는데 주역이 되었던 한 대기업의 회장이 강조했던 말이 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글로벌 마인드를 갖기를 바란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인생에서 저지룰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패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